

“東大 이사진 책임지고 물러나야”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이 최근 신정아씨 사건과 관련 동국대 교정에 있는 불상 앞에서 참회를 촉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학력위조 사건 등으로 학교 명예 ‘바닥’ 교수회·승가회 등 사퇴 촉구 한목소리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된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동국대에 학교명예의 참회와 재단이사진 사퇴 요구 등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학교당국과 재단이사회는 특단의 조치는 커녕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교수회(회장 이종욱)는 10월 1일 선언문을 통해 “두 차례의 이사회에서 공문화된 신정아 문제를 상호 정쟁의 시각에서만 처리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분명 법인 이사회에 있음을 자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수회는 대학당국에 대해서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한 글썽까지 겪어 만든 책임은 현 대학당국에 있다”며 “대학당국은 이를 직시하고 참회와 자정으로 우선 재학생과 동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회장 호림·성관)도 1일 동국대 재단이사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승가회는 이날 정립 15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우선 동국대 학교 이사회는 최근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 이하 이사진 전원의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며 “특히 이사장 영배 스님은 신정아씨 학력 허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인 지난 7월 2일 교계 기자회견을 열어 ‘학위가 가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흥덕사 특별교부금 지원 의혹에 협조하는 등 중립학교 최고책임자로서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국대의 한 교직원도 “학교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 책임지는 이는 하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학교 내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으며, 외부에서도 굽지 않은 시각이 높아 이대로 가다간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에도 지장을 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불멘소리를 냈다.

실상가상으로 동국대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인문학 활성화

위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시행할 ‘인문학대시’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데 이어 BK21 ‘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이하 불교학 연구단)’은 지난 9월 17일 발표한 2단계 BK21 사업 평가도 ‘사학·철학’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불교학 연구단은 부진한 평가 점수로 인해 1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불교학 연구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취임한 오영교 총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108 프로젝트’ 등 학교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도 최근 신정아씨 사건 조사 등에 소진하는 바람에 현재 담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인 정범 스님(육천암 주지)이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동국대 교정 불상 앞에서 참회기도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범 스님은 “신정아 학력위조 사태로 시작된 종단의 위기 상황에 대해 동국대 동문으로서 또한 종단 중회의원으로서 참회한다”며 “불교계의 현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앞서 내 스스로의 조그마한 양심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싶고 힘을 얻고자 기도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글=김주원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기쁨을 차곡차곡 담아 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7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불타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82
- 이메일 접수 : jygang@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 반대” 문화재사찰위, 저지 방안 마련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을 강력 저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경기도청 항의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재사찰위원회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하위법령 조제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를 동일하게 200m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임법추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재훼손을 가속화해 실질적인 문화재보호정책의 후퇴는 물론 문화재적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남동우 기자

“종교의 힘으로 南北간 벽 허물자”

지관 스님, 남북정상회담서 종교계 교류 추진 제안

10월 2일~4일 3일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2007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종교계 수행원 4명이 올해 남측에서 ‘남북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

10월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종교계 수행원들은 “10.4 선언”을 뒷받침할 ‘평화에 관한 종교계 선언’을 추진하고, 6.25를 전후한 시기에 남북의 종교·문화예술·체육분야에 걸쳐 ‘평화주간’ 행사를 개최하며, 남북 종교계 교류의 정례화와 쌍방화를 추진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남측 종교계 단장을 맡은 지관 스님은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대립을 얹어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측에 전했다”면서 “이를 위해 교류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지만 종교별 교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남북정상회담 종교분과 모인에서 기초발언문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종교 간의 활동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 올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남북 공동 번영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중

교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족 통일과 화해를 위한 종교 행사를 문화, 예술, 학술 분야와 함께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우리 종교계에서는 각각 교인들에게 민족 통일과 평화, 화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관 스님은 10월 2일 정상회담에 참가하며 “남북의 불자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금강산 신계사를 지난 4년 동안 공동으로 복원하고 오는 10월 13일 낙성식을 앞두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진전된 민족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남동우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영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후대본 010-7504-4521 (당영회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박민선 변호사)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5cm, 5 x 7cm으로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문화다양성 이해와 지구촌 평화를 위한 문화마당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기간 : 2007년 10월 18일(목)~21일(일)
장소 : 법흥사(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법흥사 ☎ (033) 374-9177

- 1 평화음악회**
일시 : 2007년 10월 19일(금) 오후 5시30분~8시
한국(가야금), 중국(얼후, 비파), 일본(사미엔, 인도(사르드) 등 각 국가 전통 현악기 연주 설운도, 평민 현준, 포스(Four's), 현숙, LMB Singers의
- 2 법흥사 중창불사 10주년 기념법회**
일시 : 2007년 10월 20일(토) 오전 10시
- 3 법흥사 중창불사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일시 : 2007년 10월 19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
- 4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증진을 위한 문화한미당**
일시 : 2007년 10월 20일(토) 오후 5시
- 5 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영월지역 농특산물 판매**
기간 : 2007년 10월 18일(목)~20일(토)
- 6 외국인 템플스테이**
기간 : 2007년 10월 20일(토)~10월 21일(일)
- 7 평화음악회-현의 어울림 재공연**
일시 : 2007년 10월 20일(토) 오후 2시~3시
- 8 체험프로그램**-유명 서예가 가훈씨주기, 선묵화 체험, 염주만들기, 한지공예, 꽃누를 체험, 다도체험